

승려 김석윤을 통해 보는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한금순*

• 목 차 •

- I. 머리말
- II. 김석윤의 사상과 그 실천
 - 1. 김석윤의 생애
 - 2. 유학자 김석윤의 의병 활동
 - 3. 승려 김석윤의 불교 활동
 - 4. 김석윤의 항일 활동
- III.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 IV. 맺음말

* 제주대 사학과 강사.

한글요약

김석윤은 제주유림의 유학자이면서 출가한 승려이다. 출가 이후 제주의병항쟁에서 무기제조와 창의에 앞장서고 통고사를 작성하였으며 의병장을 역임하는 등의 항일활동을 벌였다. 김석윤의 생애를 통해 유학자로서의 의병활동, 승려로서의 불교활동 그리고 항일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사상적 편력과 실천 양상은 곧 시대적 상황에 적극 참여한 제주 지식인의 사상적 고민과 실천의 면모라 하겠다.

김석윤은 출가한 승려이면서도 서재의 훈장을 하면서 제주의병항쟁의 중심 역할을 하였다. 항일이력으로 일제의 감시로 인해 제주도를 떠나 용화사 선원을 근거지로 참전을 하였다. 제주도를 떠나 있으면서도 관음사 활동에 힘을 보태었으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인적 토대 마련에도 관여한다. 법정사 항일운동 주역인 김연일과 강창규 방동화는 모두 김석윤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다.

193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제주도에서 활동을 재개하면서 일제의 사찰령을 피해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 선리참구원의 제1 지방분원으로 제주 선원을 창립하였고, 1942년 제주도의 미륵교의 항일운동에도 김석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김석윤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제의 감시대상이었다. 김석윤은 미륵교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석윤은 다양한 사상에의 편력을 보여준다. 유학자이면서 출가한 승려이고, 승려이면서 다시 서재의 훈장을 하고, 미륵교를 신봉하는 면과 함께 선원에서의 참선 활동, 그리고 사찰의 주지 활동 등으로 생애를 꾸렸다. 이러한 김석윤의 모습은 구한말 이후 정치적 혼란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다양했던 우리나라 사회상과 일치하는 지식인의 갈등의 일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석윤의 다양한 사상적 편력은 곧 근대 우리나라 지식인의 고민의 일면이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실천해내는 지식인의 책임이었다고 보인다.

주제어

제주 의병항쟁, 제주 의병항쟁 격문과 통고사, 제주 법정사항일운동
제주선원, 미륵교의 항일운동, 제주 유림, 항일 승려, 관음사 창건, 문
귀사숙, 통영 용화사

K C I

I. 머리말

승려 김석윤은 제주유림의 유학자로서 서재의 스승과 함께 불교경전을 공부한 영향으로 출가한 인물이다. 출가 이후에는 승려의 신분으로 제주의병향쟁에서 중심 역할을 하며 항일운동에 앞장섰다. 유림 활동과 승려활동을 함께 진행해나간 김석윤은 근대 시기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동시대 유림의 유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출가한 승려를 좋지 않게 생각하던 시기이다. 그러나 김석윤은 유학자로서 제자를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승려로서도 제자를 남기고 있는 등으로, 유학자로서의 활동과 승려로서의 활동을 함께 진행해나가는 특이한 인물이다.

김석윤은 제주도 항일운동사에서 제주의병을 주도한 행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다. 또한 제주불교사에 있어서도 관음사의 창건에 역할을 하여 근대 제주불교를 다시 일으킨 인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관음사의 활동은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일제시대 내내 김석윤은 항일운동에 연루되는 인물이다. 제주도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며 불교사 측면에서도 근대 제주불교 활동의 중심을 차지하고 인물로 김석윤의 행적 전반을 살피는 것은 제주도 역사와 제주도 불교사의 한 축을 차지할 만하다. 이에 김석윤의 생애 전반을 통해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의 단편을 살피고자 한다.

김석윤에 관한 기록으로는 제주의병향쟁의 결과물인 「형사판결문」을 비롯한 「격문」, 「통고사」 등이 있고, 불교계 자료로 『법계』와 제주교무원의 「교적부」 외 기타 사찰 소장 자료와 신문자료, 그리고 김석윤이 썼던 「일기」, 동생 김석익이 기록한 「망형석성도인행록」, 관음사 주지였던 오이화의 「조사」 외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장 4수 등이

있다.¹⁾

II. 김석윤의 사상과 실천

1. 김석윤의 생애²⁾

김석윤은 제주유림의 유학자로 활동하였고 출가한 승려로서 제주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 김석윤의 생애는 연대기로 간략히 정리하고, 생애 핵심활동인 의병활동과 불교활동, 항일활동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다루고자한다.

김석윤(金錫允)은 제주도 오라리 644번지 출신으로 1877년 8월 23일 아버지 김창규(金昌圭) 어머니 김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름은 석윤, 자는 근수(勤受), 호는 석성(石惺)이며, 제주의병항쟁에서는 석명(錫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출가하여 법명은 종화(鐘華), 법호는 상운(祥雲)이다.

명도암(明道菴) 김진용(晉鎔)의 9세손이며, 아버지 김창규(昌圭)는 무과 봉사(奉事)이고 어머니는 김해 김씨로 통덕랑(通德郎) 기준(沂準)의 딸이다.

1887년 10세에 제주 광양서재 김병규(金炳奎) 문하에서 통감·사서·사략 등을 공부하고 14세에는 『금강반야경』을 수학하였다. 17세인 1894년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에서 출가하였다. 김석윤의 출가는

- 1) 김석윤의 자료는 유족 김동호의 도움으로 본연구자도 원자료를 모두 보고 복사하여 소장하고 있다. 각주에는 원본 소장처로 기록하였다.
- 2) 김석윤의 생애는 동생 김석익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 제주교무원이 소장하고 있는 「교적부」, 오이화의 「조사」, 김석윤의 「일기」 등 모두 원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이 원자료는 본 연구자가 제주불교사연구회 일원으로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으로 엮었다.

스승 김병규의 영향을 받은 바이다. 유학자들의 불교 경전 공부는 또한 출가한 김석윤이 1898년 제주 광양서재 등에서 훈장 및 교사로 활동하였던 이력에서 그 교류의 자연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기도 하다. 1908년 승려 봉려관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하였으며 1909년 관음사 서무로 활동하였다.

김석윤은 1909년 2월 25일 제주의병항쟁에 참여하였다. 고사훈 등과 함께 창의하여 제주 광양에 대장간을 차려 무기를 제조하고, 황사평에서 비밀리에 의병의 훈련을 추진하였고 전답을 팔아 재정을 마련하였다. 격문과 교정 조목 집필에 관여하고 통고사를 작성하였다. 1909년 3월 4일 광양에서 체포되었으며 내란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0년의 유배형을 언도 받았다가 제주유림의 노력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무죄를 언도받았다.

이후 김석윤은 1910년 통영군 용화사 선원에서 20여년을 안거하였다. 1930년 위봉사 말사인 청련암 주지를 지낸 이후 제주도로 들어와 1934년 월정암 주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에 월정암을 제주선원 월정사로 창립시켰고, 이어 1939년 위봉사 제주 표선면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를 역임하고, 1941년에는 위봉사 하례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 역임, 1942년 관음사 평대포교소 주지, 1945년 관음사 소림원 주지를 역임하고 제주불교승려대회로 구성된 제주교무원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1946년 김녕 백련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49년 8월 25일 73세로 입적하였다. 아들 김성수와 김인수도 승려로 활동하였으며 막내 김덕수는 제주4·3사건 당시 월정사에서 잡혀나가 토벌대의 총에 희생되었다.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고, 제주시 사라봉 공원 모충사 내에 제주의병항쟁을 기념한 ‘의병항쟁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2. 유학자 김석윤의 의병 활동

김석윤의 의병활동은 유학자로서의 사상적 토대하에 실천한 면모라 할 수 있다. 김석윤이 작성한 격문은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다.

김석윤은 이미 1894년에 출가한 승려의 신분이면서도 제주유림의 인사들과 뜻을 같이하여 제주의병항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8년 김석윤(의병활동 당시 이름은 김석명)은 고승천 등과 함께 제주 이도리 광양동에 대장간을 차려 무기를 제조하고 황사평에서 비밀리에 훈련을 추진시키는 한편, 전답을 팔아 재정을 마련하는 등으로 의병항쟁의 중심축으로 활동하였다.

제주유림의 김석윤 고사훈 김만석 등은 기우만의 의병활동에 영향을 받아 제주의병항쟁을 계획하였다. 제주도의 김석윤 고사훈 등이 전라남도 장성의 기우만과 인연이 되는 곳에는 안병택이 있다. 안병택은 아버지 안달삼의 권유로 기정진에게 학문을 배우기 위해 전라남도 장성으로 이사하였다.³⁾ 이에 따라 제주에서 고사훈 김만석 김석익 등의 많은 제자들이 안병택을 찾아가 공부하였다. 기정진이 사망하자 안병택은 기정진의 손자인 기우만과 같이 활동하였고 제주도의 고사훈 김석윤 김만석 등도 기우만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기우만은 호남창의회맹소 대장인 삼촌 기삼연과 함께 의병활동을 하였다. 기삼연은 1896년, 1907년 고창·영광·부안·정읍·광주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제주의병항쟁은 1909년 2월 25일 이도리 광양동 조병생의 집에서 의병 창의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창의자는 고승천(고사훈)·이중심·김석명(김석윤)·노상옥·조병생·김재돌·양남석·양만평·김만석·한영근 등 10명이었다. 거사일은 1909년 3월 3일, 거사장소는 관덕정으로 정하였다. 1909년 2월 25일 창의와 함께 고승천·이중심·김석윤 3인은 격문을 작성하여 오시에 발송하였다. 다음은 격문

3) 안병택 저, 오문복 역, 『부해문집』Ⅱ(제주문화원, 2009).

의 내용이다.

<격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라의 은혜에 대한 충성이요, 부모에 대한 효도이다. 만약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곤궁함을 구하지 못한다면 불효가 되는 것이요, 나라의 위급함을 걱정하여 나서지 않는다면 이는 불충이 되는 것이니, 비록 사람이라 하더라도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 지금 교활한 왜적이 병자년 수호조규(修好條規) 이래 나라의 주권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 이제 왜적의 무리가 우리 강산을 짓밟고 있으니 그대로 두면 이 강산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요, 우리는 왜적의 노예가 될 것이니 이 어찌 좌시할 수 있으랴.

오호라, 천도(天道)가 무심하리오, 경향 각지에서 충의지사들은 국권수호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이에 우리 제주민도 진충보국(盡忠報國)하고 자손만대에 선릉(先陵)을 지키게 할 때가 왔다. 피 끓는 충의지사여,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하여 성은에 보답할 자는 의성(義聲)으로 합창하여 생사를 같이하자. 열혈의 충의용사는 팔뚝을 건어붙이고 총궐기하라.

의병장 고승천, 의병장 이중심.⁴⁾

왜적의 무리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강탈하고 우리 강산을 짓밟고 있으니 우리는 왜적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총궐기하라는 내용의 이와 같은 격문과 아울러 구체적 행동 내용을 담은 통고사도 함께 작성하였다. ‘마을의 이강은 호적에 근거하여 모병하여 올 것이며, 선박의 출입을 금하며, 총포·활·칼·몽둥이 등을 가지고 올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화북에서 동쪽으로 돌아 용담에까지 제주도를 순회하도록 하였다.

<통고사>

이를 통고하는 사람은 고승천 이중심 등이며 지금 의병 만인을 모아

4)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0쪽.

우리 조선의 옛 제도를 회복하고자 한다. 각 마을의 여러 군자들은 모두 사소한 것을 버리고 대의에 화합하여 의를 위하여 진병(進兵)할 따름이다.

- 각 향의 바로 잡아야 할 일은 회의 시에 선포한다.
- 각 마을 이강(里綱)은 호적에 의하여 일일이 인솔하여 오라. 만약 이에 거역하는 백성은 이름을 적어 보고할 것이며 통적(統籍) 1부 씩 지참하여 점고할 것.
- 음력 2월 초 6일(필자 주 : 양력 2월 25일) 오시(午時)에 발통(發通)하니 공북(拱北)으로부터 삼양, 신촌, 조천, 함덕, 북포, 동북, 김녕, 무주(武洲), 행원, 상·하괴(上 下槐), 평대, 세화, 상·하도, 종달, 우도, 역돌(力堧), 오조, 수산, 고성, 온평, 난산, 기등(基等), 신천, 중천, 상천, 포선, 도내, 토산, 보한(保閑), 의귀, 우미(又美), 중효, 상효, 토평, 보목, 동·서흥로, 호근, 법환, 강정, 도순, 하원, 중문, 대포, 상·하예래, 대평, 창천, 감산, 화순, 덕수, 사계, 상·하모, 상·하일과, 영락, 무릉, 도원, 고산, 용수, 두모, 판포, 배령(盃令), 협재, 독포, 동·서명월, 대림, 잠수(潛水), 중대, 광지, 귀덕, 남읍, 상·하가, 애월, 고내, 삼엄(三嚴), 수산, 상·하귀, 내·외도, 동·서도두, 다호(多好), 대독(大獨) 차례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전달할 것.
- 금월 12일(필자 주: 양력 3월 3일) 관덕정에서 점고할 때 참석하지 않은 이장은 목을 뿔 것이다.
- 선박의 출입을 엄히 금하니 누구의 선박 몇 척이 있고 없음을 상세히 보고할 것.

기유 2월 초 6일(음력) 오시(午時) 의병소발통(義將所發通)⁵⁾

또 의병소에서는 제주, 정의, 대정 삼읍의 중촌 상촌 각 이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도 통고하였다.

이 통고는 왜인을 타살함으로써 백성들을 편안케 하리라. 모든 백성은 이 통문을 보는 날 즉시 죽야 죽시에 관덕정으로 와서 모이라. 또 첩포가 있는 자는 첩포를 가지고 오라. 궁시가 있는 자는 궁시를 가지

5)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1쪽.

고 칼이 있는 자는 칼을 가지고 첼포 · 궁시 · 범도도 없는 자는 몽둥이를 가지고 오라. 만약에 명령에 위반하는 마을이 있다면 즉시 해당 마을 리장의 삼죽을 멸하리라. 어떤 마을이든지 이 통문을 숨기어 속히 전달하지 않으면 즉시 해당 마을 리장의 삼죽을 멸하리라.

삼읍 중촌 상촌 이장 좌하(座下) 의병소 기유 2월 일⁶⁾

통문을 보고 관덕정으로 모일 것이며 첼포나 궁시 혹은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 통문을 숨기어 전달하지 않으면 이장의 삼죽을 멸하겠다고 하였다. 이 격문은 화북에서 동쪽으로 제주도를 돌아 서쪽의 명월리까지 이르렀다. 의병장 고승천은 노상옥 · 조병생 · 김재돌 · 양남석 · 김만석 등과 대정군 영락리와 신평리, 동 · 서 광청리, 안성리 등지에서 의병을 규합하였고 이중심은 김석윤 등과 제주군 중면(현재 제주시)을 중심으로 의병을 규합해 합세할 예정이었다. 격문을 받은 구우면 두모리장 김재형은 출병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월 1일 의병장 고승천이 동광청리 민가에서 대정 주재소원에게 체포되고 명월리에서 격문을 순사에게 압수당하면서 제주의병항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제는 의병운동의 파급을 우려하여 끝까지 항거하는 고승천 · 김만석을 1909년 3월 4일 총살하였다. 김석윤은 3월 4일 광양에서 체포되었으며 내란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1909년 4월 2일에 10년 유배형을 언도 받았다. 제주유림의 알선으로 김석윤은 공소를 제기하여 증거불충분으로 1909년 7월 22일 대구공소원에서 무죄를 언도받았다. 다음은 김석윤의 판결문이다.

<1909년 형사판결 제71호. 김석명 판결문>
판결
전라남도 제주군 이도리 광양동

6)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1쪽.

농업 김석명(金錫命 33세, 일명 錫允, 勤受)

위 피고에 대한 내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융희 3년 4월 2일 광주지방 재판소에서 선고한 유죄 (유배 10년)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공소 신청하였으므로 본원은 검사 대촌대대(大村大代) 입회하 심리하여 판결은 다음과 같음.

주문

위 판결을 격소함.

피고 김석명은 무죄, 압수물건은 각 차출인에게 돌려줌.⁷⁾

본 판결문은 김석윤이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또한 이 판결문에서 김석윤의 의병항쟁에서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이유 :

피고 김석명이 정치 변경을 목적으로써 내란을 일으킬 것을 기도하여 융희 3년(1909년) 2월 25일 고승천 이중심 외 수명과 함께 전라남도 제주군 중면 이도리 광양동 조병생 집에 회합하여 난민 모집의 격문을 작성하여 이를 제주 도내 각지에 발송하고 동년 3월 초3일을 기하여 제주성내 관덕정에 집합하여 거사할 것으로 하여 고승천 등은 대정군으로 가고 피고는 집에 있다가 고승천 등이 거사함을 기다려 이에 호응할 수단을 정하여 그날로 고승천 외 수명은 대정군으로 가서 백성을 위협하여 다수의 무리를 모아놓고 이를 인솔하여 제주 성내로 침입하려고 할 때 동군 중면 광청리에서 경찰과 충돌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는 공소 사실은 증빙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압수 물건은 모두 차출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그런즉 원 재판소가 위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공소의 이유가 있으므로 인하여 민형(民刑) 소송 규칙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융희 3년(필자 주: 1909년) 7월 22일 대구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판사 前澤成美, 판사 김응준(金應俊), 판사 寺川三藏

7) 「1909년 형사판결 제71호. 김석명 판결문」(대구공소원 형사부, 1909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pp.78-79 재수록.

음희 3년 7월 22일 언도

동원 재판소 서기 이우정(李愚正)⁸⁾

김석윤의 석방은 부친을 비롯한 이응호⁹⁾ 김상수¹⁰⁾ 등의 제주유림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다. 이응호는 집의계의 일원이다. 또한 김석윤의 스승 김병규도 집의계의 일원이었다. 집의계는 제주 각 지역의 유림 대표 12인으로 구성되어 국운을 바로잡기 위해 결사 항쟁을 맹약하였던 제주유림의 비밀결사체이다. 『망형석성도인행록』에 그 내용이 있다.

기유(己酉, 1909)년 봄에 향인(鄉人) 고경지(高景志)가 여기저기 격문을 보내어 의병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였다가 죽었다. 격문이 공과 연결된 것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갑자기 광주로 이감되었다가 여러 달 뒤 대구로 이송되었다. 일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이 때에 아버님께서 늙은 나이에 불구하고 불벌더위를 무릅쓰고 산과 바다를 건너셨는데, 다행히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 행차에는 향유(鄉儒) 이응호(李膺鎬), 김상수(金庠洙), 향인(鄉人) 김원준(金元俊), 홍순익(洪淳益) 등이 함께 하였는데 전후에서 알선한 힘이 매우 컸다.¹¹⁾

이중심 · 노상옥 · 조병생 · 양만평 · 양남석은 도외로 탈출하였으며 한

8) 「1909년 형사판결 제71호, 김석명 판결문」(대구공소원 형사부, 1909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pp.78-79 재수록.

9) 이응호(李膺鎬 : 1871년~1950년. 자 元命, 호 觀海, 雲齋).

10) 김상수(金庠洙 : 1871년~1926년. 자 公序, 호 學庵).

11)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328-330, 재수록.(『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은 본 연구자가 참여하여 만든 자료집이다. 『망형석성도인행록』이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되기 이전에 원본으로 보고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에 실었다. 이하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은 본연구자가 제주불교사연구회 활동으로 원본을 토대로 만든 것이기에, 출처는 재수록으로 제시하겠다.)

영근·김재돌은 체포되었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두모리장 김재형은 3년 유배형을 받았고 신좌면 대흘리장 부우기는 경찰에 연행되어 온갖 고초를 당하였다.

제주의병항쟁을 기념하여 제주시 사라봉 공원 모충사 내에 ‘의병항쟁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김석윤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다.

김석윤은 제주의병항쟁에 참여할 때 이미 출가한 승려로 관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김석윤의 이러한 사상은 관음사에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에 강창규를 비롯하여 김연일 등의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한 승려들이 관음사에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석윤의 제주의병항쟁 이력은 관음사를 일제가 주시하게 만들면서 김석윤은 관음사를 떠나 통영 용화사로 옮겨가야 하였으며, 강창규 등의 항일 의식을 가진 승려들은 법정사로 근거지를 옮겨야 하였다. 김석윤은 초창기 관음사 활동의 주요인물이지만 일제강점기 하에 항일이력을 가지게 되면서 이후 제주 불교 활동에서 제외된다.

3. 승려 김석윤의 불교 활동

김석윤은 17세에 승려로 출가하였고 사망하기까지 승려로서 활동하였다. 불교 사상을 실천함에는 항일 정신을 함께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출가한 승려의 신분이면서도 동시에 유학자로서의 활동도 함께 해나갔다.

김석윤은 1894년 17세에 전라북도 전주군 위봉사에서 박만하(朴萬下)¹²⁾ 스승으로 출가하였다. 법명은 종화(鐘華) 법호는 상운(祥雲)이다. 사미계사는 오회현(吳晦玄) 비구계사는 박만하이다. 상좌는 김

12) 박만하는 관음사 초창기 활동에 공헌한 인물로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가 그 공적을 기리어 안봉려관과 안도월과 함께 관음사 조사전에 봉안한 인물이다.

평수(金平守), 고원준(高元準)이 있고 법제자로 김만해(金滿海)를 두었다. 그의 불교 활동은 「교적부」¹³⁾ 기록으로 남아있다. 「교적부」는 1947년에 관음사 교무소가 각 승려들로부터 소속 본사의 인증절차를 거쳐 수합하여 놓은 것으로, 인적사항을 비롯 승려로서의 제반 관련사항을 기록해 놓은 문서이다.

[표. 「교적부」 기록을 통한 김석윤의 활동]

연도	내용
1877년	1877년 8월 23일 출생
1887년	1887년 2월 3일 제주 광양書齋 金炳奎 문하에서 통감 사서 사략 등 수업
1891년	1891년 3월 20일 광양서재에서 金雪月 문하에서 내전 금강반야경 수학
1894년	1894년 7월 15일 위봉사에서 득도 ¹⁴⁾
	1894년 7월 15일 전주군 위봉사에서 사미계 수
1898년	1898년 1월 15일 제주광양서재 교사 취임
	1898년 2월 15일 대흥사에서 趙雲潭을 스승으로 내전 초등과 수료
1902년	1902년 1월 20일 통영군 용화사에서 李東雲을 스승으로 사교과 수료
	1902년 2월 1일 제주문□서재교사 취임
1909년	1909년 4월 8일 제주 관음사 서무 취임
1910년	1910년 1월 15일 통영군 용화사 선원에서 수선안거 성취하고 이래 법랍 20夏 성만
1911년	1911년 1월 15일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 역임
1916년	1916년 4월 8일 위봉사에서 비구계 수(受)
	1916년 6월 동래군 범어사에서 吳晦玄강백을 스승로 대교과 수학

13) 「김석윤의 교적부」(1947, 관음사교무소, 대한불교태고종 제주총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214-215, 재수록.

1927년	1927년 4월 5일 위봉사에서 중덕법계 품수
1930년	1930년 2월 3일 위봉사 말사 청련암 감원 취임
1934년	1934년 4월 8일 범어사 제주포교소 월정암 감원
1938년	1938년 3월 25일 위봉사 도첩 수(受)
1939년	1939년 3월 1일 위봉사 제주 표선면포교소 설립 감원
1941년	1941년 5월 20일 위봉사 하례포교소 설립 감원
1942년	1942년 4월 8일 관음사 평대포교소 감원
1943년	1943년 7월 16일 위봉사에서 대덕법계 승진
1944년	1944년 9월 11일 위봉사로부터 대흥사 말사 관음사로 전입적
1945년	1945년 10월 15일 관음사 소림원 감원
	1945년 12월 3일 제주교구 고문 위촉
1946년	1946년 5월 1일 김녕 백련사 주지
1949년	1949년 8월 26일 오라리 자택에서 입적 제적

위의 「교적부」에 나타나듯이 1894년 김석윤의 출가는 광양서재의 스승 김병규¹⁵⁾에게서 『금강반야경』을 수학하는 등의 영향이다. 김석윤은 광양서재에서 통감 사서 사략 등의 경서와 함께 불교 경전을 공부하였다. 김석윤의 아우 김석익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의 기록에도 스승의 영향으로 불문(佛門)에 귀의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일찍이 운감(雲龕) 김병규(金炳奎)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였다. 김공(필자 주: 김병규)은 불법(佛法)을 좋아하고 숭상하였다. 공(필자 주: 김석윤)은 후에 불문에 귀의하였는데, 대체로 김공(필자 주: 김병규)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¹⁶⁾

14) 득도(得道)는 출가를 의미한다.

15) 김병규(金炳奎 : 1832~?. 호 雲龕).

16)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328-330, 재수록.

관음사 2대 주지 오이화의 『조사(弔詞)』에도 스승 운감의 영향을 기록하고 있다.

운감(雲龕) 문하에서 유불을 겸하여 닦으셨습니다. 소년시절의 학문은 그 재주 또한 뛰어났으며, 훈학하던 서당 안에서 문필(文筆)은 선생의 풍(風)을 완전히 갖추었고, 그 도(道)는 능히 사물에 대해 널리 알아 많은 사람들이 크게 달라지게 해주셨습니다.¹⁷⁾

당시 유럽에서도 불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것은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 생활의 영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다. 19세기 중반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한 김정희의 불교 성향은 제주유럽 제자들에게 영향을 남겼다.¹⁸⁾ 또한 1898년 제주도로 유배되어 온 외무 대신 김윤식도 제주도의 굴원 유생들과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등을 매달았다거나, 불교 경전인 『전등록』 등의 서적을 함께 보는 등으로 불교 신앙의 모습을 남겨놓고 있다.¹⁹⁾

이러한 영향은 제주 유럽에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제주유럽의 홍종시는 김윤식과의 굴원 시회에서 석가탄신일을 기념하여 직접 시축(詩軸)을 쓰고²⁰⁾, 『전등록(傳燈錄)』²¹⁾ 및 여러 가지 서법(書法)을 김윤식에게 보내었다.²²⁾ 1924년 결성된 제주불교협회의 시회장으로 ‘관세음보살개금원문’²³⁾에 이름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1925년 12월 30일 개최된 제주불교협회의 제1회 금강대계회(金剛大戒會)에서

17) 오이화, 『조사(弔詞)』(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18) 이한진 저, 김영길 역, 『매계선생문집』(제주문화, 1998).

19)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제주문화원, 1996), 80, 105, p.189.

20)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제주문화원, 1996), p.80.

21) 『전등록』은 과거7불과 천축의 28조, 진단(震旦)의 초조 보리달마와 그 후대로 이어지는 인도와 중국의 두 나라,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승 등 선문의 선장(禪匠)들을 전등상승(傳燈相承)의 차례에 따라 열거한 선종의 인물사다.

22)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제주문화원, 1996), p.105.

23) 제주 관음사 소장(1925년).

포교당 건축비를 회사하였다.²⁴⁾ 이렇게 불교신앙은 유학자들 사이에 신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양서재(書齋)에서는 유교 경전과 함께 불교경전도 공부하였다. 김석윤도 광양서재에서 『금강반야경』을 수학하였다. 김석윤은 스승의 영향으로 출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김석윤은 승려로 출가한 이후에도 서재에서 교사 활동을 하여 그의 문하생인 현계평(玄癸平) 등 12명²⁵⁾이 유림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서재에서의 불교경전 공부와 석가탄신일 기념 연등 등의 제주유림의 이러한 성향은 김석윤과 같이 출가의 길을 걷는 유학자를 탄생시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김석윤은 승려이면서도 유림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김석윤의 이러한 사상적 특징은 지인들에게도 인식된 사실로 김석윤이 입적하자 이응호가 남긴 추도시에 김석윤의 특징이 드러나 있다. 이응호는 제주 유림 대표 12인으로 결성되었던 집의계의 일원이다.

從古書生多好佛	어려서부터 그대는 불교에 호감이 많았지만
虎班三世繼家聲	집안은 여러 세대에 걸쳐 무관으로 명성을 드날렸네.
孫謨法侶棲山寂	그대는 불법(佛法)을 배우려고 산사에 살았고
祖述儒賢禁社誠	할아버지는 유학자의 삶에만 뜻을 두었네.
心算誄辭如活書	추도사를 헤아리니 그대 살아 있는 듯하고
高甥挽句出群英	고경수(高景洙)의 애도의 글은 가장 빼어나네.
東瀛欲遂來生願	평생 따르고자 했던 소원이여
逃佛鵲春讀聖經	봄날 두견새 소리와 함께 그대 독경 소리 들리는 듯하네. ²⁶⁾

24) 『매일신보』(1926. 1. 20).

25) 김석윤의 문하생은 진명춘(秦明春) 문정호(文正鎬) 홍경원(洪景元) 홍순하(洪淳河) 고기택(高奇澤) 문형식(文溟湜) 김치택(金致澤) 김시운(金時雲) 문공숙(文公淑) 고용봉(高庸奉) 서영수(徐永水) 등이다.

26) 임병건 해석.

집안은 대대로 유학자 집안인데 김석윤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호감이 많았고 법려(法侶)로 산사에 살았다고 하였다.

김석윤은 출가 이후 1908년 승려 봉려관을 도와 관음사를 창건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사 창건에도 기여하였다. 『망형석성도인행록』에는 김석윤이 봉려관을 도왔음이 기록되어 있다.

공은 본디 세상을 초탈하는 불교를 좋아하였다. 대구에서 돌아온 후 여승 봉려관과 함께 색수수(塞水葢) : 스1미털)에 불사(佛舍)를 창건하였다. 남주(南州)의 사찰들은 이곳이 그 시초가 된다. 또 법정(法井)에 도량을 열었다. 모두 시사(施舍)가 있었다.²⁷⁾

오이화의 『조사(弔詞)』에도 이에 대한 김석윤의 도움이 언급되었다.

봉려(蓬廬)가 절을 지을 때 공적을 이룬 자가 누구겠습니까. 표창하여 새길 적에도 공의 이름은 역시 뚜렷하였습니다.²⁸⁾

관음사는 1908년 승려 봉려관이 창건하였다. 관음사 창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 ‘승운대사’ 혹은 ‘운대사’라는 인물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회명문집』의 「제주 한라산 관음사 법당 중건 상량문」이다. 이 상량문에는 봉려관이 산천단에서 계룡산의 ‘승운대사’에게 법의를 전수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봉여관 비구니가 세운 산천단에서 계룡산의 승운 대사가 기도하던 가운데 무신년 (필자 주: 1908년) 오월 단오날에 법의 한 벌을 전수하여 받은 일²⁹⁾

27)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328-330, 재수록.

28) 오이화, 『조사(弔詞)』 (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29)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 1991).

『회명문집』은 1924년 제주불교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근대제주 불교의 중심인물이었던 이회명의 문집으로 그의 행적과 그가 남긴 글들을 모은 책이다.

또한 이은상은 『탐라기행』에서 「관음사 사적기」를 인용하여 봉려관이 ‘운대사’에게 가사를 받았다고 하고 있다.

이 관음사는 봉려관이라는 비구니가 창건한 것인데, …(중략)… 다시 발심하여 산천단으로 내려왔더니,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³⁰⁾

이은상이 제주도를 여행하며 관음사 사적기를 보고 관음사를 창건한 내력을 옮겨놓고 있다. 봉려관에게 산천단에서 ‘운대사’가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고 하였다.

진원일도 이은상과 같은 자료를 보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러할 무렵에 「운대사」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오늘은 참 잘 만났구나!) 하면서 가사 한 벌을 내주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³¹⁾

진원일은 ‘운대사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라고 표현하였으면서 인용한 한문 원문에는 ‘이승운대사(異僧雲大師)’라고 옮겨놓았다. 이는 이은상이 표현한 ‘이승 운대사’와 일치하여 진원일과 이은상은 같은 글 즉 관음사 사적기를 보았던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이승(異僧) 운대사’ 혹은 ‘승운대사’ 또는 ‘운대사’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괴이한 승려 운대사로도 표현되어버린, 봉려관에게 가사를 전수

30) 이은상, 『탐라기행』(조선일보사, 1937).

31) “有異僧雲大師曰望子久矣今日幸逢云而出給袈裟”[진원일,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지』 제39집(1969. 7)].

한 운대사 혹은 승운대사는 상운(祥雲) 김석윤일 것으로 추정된다. 김석윤은 이미 1894년 출가한 승려이면서 상운(祥雲)이라는 법호로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김석윤은 봉령관을 도와 관음사 창건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관음사 사적기에 언급될만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운대사는 상운 김석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바로 용화사 탕화인데, 우선 앞에 인용하였던 이은상의 관음사 사적기에서 용화사 불상과 탕화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다.

산천단으로 내려왔더니, 운대사(雲大師)라는 이승(異僧)이 있어서 「오래 기다렸더니 이제야 본다」하며 가사 한 벌을 내어주었다. …(중략)… 또 다시 다음 해(필자 주: 1910년)에 영봉(靈峰) 화상과 안도월 처사 등이 육지에서 들어오면서 용화사의 불상과 각 탕화 등을 가지고 왔으므로 반가이 얻어 봉안하고,³²⁾

위 관음사 사적기에 의하면 1910년에 영봉 화상과 안도월이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가지고 와서 관음사에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통영 용화사 인물이 무슨 인연으로 제주도 관음사로 오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는 바로 김석윤의 역할이 담겨져 있다.

이 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현재 통영의 용화사와 범륜사에 남아있다. 이들 탕화의 화기(畵記)는 1910년에 영봉 화상이 용화사 탕화를 관음사로 가지고 오게된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1910년(융희 4년) 5월에 조성한 용화사 도솔암 극락전 산신탕화는 도감 두연 화주 비구니 봉령관으로 화기를 남기고 있다. 두연은 바로 영봉 화상이다.³³⁾ 또 용화사 적묵당에 봉안되어 있는 감로탱화는 1910년(융희 4년) 9월에 조성하여 미륵산 용화사 약사전에 봉안하였는데 화주가 바

32)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33) 용화사 도솔암 극락전 산신탕화는 경상남도 통영시 범륜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로 영봉 두연 화상이었다.³⁴⁾ 이 두 개의 탕화는 1910년 용화사에 큰 불사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때 비구니 봉려관과 영봉 화상이 화주가 되어 용화사에 새로운 탕화를 조성 봉안하였고, 기존 용화사의 탕화는 영봉 화상이 제주도 관음사로 옮겨 봉안하였던 것이다.

영봉 화상과 봉려관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김석윤과 연관이 있다. 김석윤은 1902년 용화사에서 이동운(李東雲)을 스승으로 하여 사교과를 수료하였고, 1909년에는 관음사 서무를 역임하였으며 1910년에는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하고 있었다. 1911년에는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로 일하였다. 김석윤은 1910년 이후 20년을 용화사 선원에서 안거할 정도로 용화사를 근거지로 승려활동을 하였다. 김석윤은 봉려관으로 하여금 용화사 탕화의 화주를 맡게 하는 인연이 되고, 용화사의 탕화와 불상을 영봉 화상으로 하여금 관음사로 가지고 가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안도월을 관음사로 데려와 차후 관음사 초대 주지로서 제주불교를 이끌어 가는 축으로 삼기도 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석윤은 이렇게 관음사 창건 이후 불상과 탕화를 갖추는 일은 물론 관음사에서 활동할 인물에까지도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관음사에는 법정사 항일운동 주축 인물인 강창규를 비롯한 항일 의식을 가진 인물들이 승려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관음사에 모이게 된 중심에 바로 제주의병항쟁의 의병장이었던 김석윤이 있었다. 그러나 김석윤은 제주의병항쟁에 참여한 이후 제주불교 활동에서 소외되었다. 김석윤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항일운동에 연루되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하에서 제주불교계는 김석윤과의 연관을 금기시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다. 김석윤의 성향은 관음사의 승려들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법정사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법정사의 승려들은 관음사에서 활동하였던 강창규와 방동화와의 인연으

34) 용화사 감로탱화는 경상남도 통영시 용화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로 제주에 내려온 기림사 승려들이었다. 김석윤과 강창규는 동향 출신으로 같은 스승의 제자로 출가한 사이이다. 1908년 관음사 창건 이후 김석윤의 영향력으로 강창규를 비롯한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이 관음사에 집결하였고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석윤의 항일의식이 그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관음사 창건 이후 관음사 서무, 관음사 해월학원의 교사를 역임하기도 하였으나 항일운동 이력으로 인한 일제의 감시로 제주에서의 활동이 불편해진 김석윤은 1910년부터 통영군 용화사 선원에서 20년을 안거하였다. 그 사이 1916년 부산 동래군 범어사에서 대교과를 수학하기도 하였다. 1930년에 위봉사 말사인 청련암 주지를 지낸 이후 1934년 범어사 제주 포교소 월정암 주지로 제주도 활동을 재개하였다. 월정암은 1938년에는 근대 제주불교의 최초 선원으로 선학원의 제주분원인 제주선원 월정사로 활동하였다.³⁵⁾ 이어 1939년 위봉사 제주 표선면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를 역임하였고, 1941년에는 위봉사 하례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 역임, 1942년 관음사 평대포교소 주지, 1945년 관음사 소림원 주지, 1946년 김녕 백련사 주지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이 되자 김석윤은 1945년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를 통해 구성된 제주교무원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는 제주불교의 고민과 활동 방향을 고민한 대회로 1945년 12월 2일과 3일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서 개최되었다. 53개 사찰에서 승려 58명, 대표 출석 화주 9명 총 67명이 참가하여 친일불교의 특성인 대치식육 및 사찰내 화주 동거 등을 반성하는 등으로 제주불교의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제주교무원을 구성해내었다. 김석윤은 관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으며 김대원 오인석과 함께 고문으로 추대

35) 「제주도 제주선원 낙성식 및 기념강연」 『불교시보』제39호 (불교시보사, 1938. 10. 1.)

되었다.³⁶⁾ 이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에는 일제시대에 대외적인 불교활동을 하지 못했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들도 참가하고 있다. 대회 결과 구성된 제주교무원의 원장인 방동화와 고문인 오인석 등이 그들이다.

1948년 제주 4·3사건의 오라리 사건으로 유명한 지역에 자리한 월정사에서 1948년 11월 13일 아들 김덕수가 잡혀가고 총살당한 이후 김석윤은 관음사 포교당에 거주하였다. 포교당 거주 당시 기록인 김석윤의 「일기」³⁷⁾에는 1948년 11월 피난 가던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으며 피난하기 전 소장하였다가 당시 불타 없어진 책으로 대학·중용·소학·통감 등 유교 경전과 추사필심경·금강경·반야경·지심경·각다경·의범 등의 불교 경전 등을 기록해 놓고 있다.

김석윤은 1949년 8월 26일 오라리 자택에서 입적할 때까지 제주의 병향쟁 등으로 세 번 감옥에 갇혀서 갓은 고초를 다 맛보면서도 한결같이 불교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망형석성도인행록』의 기록이다.

아아! 공이 종교에 귀의한지 40여 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세 번 감옥에 갇혀서 갓은 고초를 다 맛보면서도 한결같이 불교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찌 이른바 물리적인 힘으로 공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었겠으며 온갖 어려움인들 공의 뜻을 바꿀 수 있었겠는가? ³⁸⁾

김석윤은 제주도에서 불교 경전을 공부하고 그 영향으로 출가하였으며 제주도 인물의 자발적 의지를 모아 근대 제주불교의 부활을 위해 그 중심에서 활동하였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 상황으로 인한 좌절을 겪으면서도 관음사에 제주도 불교 인력을 결집시켜 놓

36) 제주교무원, 『법계』(등사본, 1946).

37) 김석윤의 「일기」는 손자인 김동호가 소장하고 있다.

38) 김석익, 『망형석성도인행록』(1949, 국립제주박물관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p.328-330, 재수록.

았으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김석윤의 항일이력은 제주불교 활동의 제약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일제는 사찰령에 의해 법정사 항일운동 이전에 관음사의 포교소 설치를 허가해 준 이후로 1924년까지 제주불교계의 사찰 설치를 허가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제주불교를 관리 감독하였다.

김석윤은 자신이 직접 제주의병항쟁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항일 의식을 가진 승려들을 관음사로 집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관음사는 이러한 김석윤의 항일의지 때문에 일제의 감시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항일인사들은 서귀포의 법정사로 이주해가고 이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김석윤의 항일이력으로 일제시기 내내 제주불교는 김석윤과의 연관성을 부정해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4. 김석윤의 항일 활동

김석윤의 일생은 항일 의지의 실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학자로서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 참여하였고, 승려로서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하는 선학원의 제주분원 월정사의 창립, 그리고 세 번이나 감옥에 수감되는 고초를 겪은 항일인사이다.

김석윤이 전라북도 임실 위봉사에서 출가하던 1894년은 갑오농민전쟁이 있던 시기이다. 김석윤은 당시 갑오농민전쟁을 겪었거나 전라북도의 사회적 변동을 몸소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1892년 전라북도 임실 죽림사에서 출가한 강창규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강창규는 김석윤과 출가 이전부터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인물이다. 강창규와 김석윤의 생가는 2Km 이내의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던 사이이다. 강창규의 출가에 이어 김석윤이 같은 위봉사로³⁹⁾ 출

39) 죽림사는 위봉사 말사였다. 위봉사는 1911년의 사찰령에 의해 전라북도

가하게 되는 것은 승려 이전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사상적으로도 동질성을 확인하는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박만하를 스승으로 하고 있으며 강창규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선봉대장으로 운동 당일 거사현장의 실질적 지휘자였다.

김석윤은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출가한 승려의 신분이면서 김석명이라는 이름으로 고승천 등과 함께 제주의 병항쟁을 창의하고 ‘죽음으로써 왜적을 격퇴하고 국권을 회복’하자는 격문을 작성하였다.

제주의병항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이력은 이후 김석윤의 활동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김석윤은 승려로서 근대제주 불교의 중흥을 담당하는 관음사 창건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사 창건에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김석윤은 이미 일제의 주목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음사 창건에 기여하고 관음사 서무와 관음사 해월학원 교사를 역임하는 등의 주요 역할이 관음사도 또한 일제의 주목 대상이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 김석윤은 제주에서의 활동을 접고 통영 용화사 선원으로 옮겨 20여년 참선하게 되었고, 강창규 등 관음사의 항일의식을 가진 승려들은 관음사를 떠나 법정사로 활동 근거지를 옮겨야하기도 하였다. 김석윤은 불교활동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항일의지를 드러내었다. 1934년에 김석윤은 범어사 제주포교소 월정암 주지로 제주도에서의 활동을 재개한다.⁴⁰⁾ 월정암은 1938년 제주 선원 월정사로 창립된다.

제주도 제주선원 낙성식 및 기념 강연

지방을 대표하는 본사로서 46개 사찰을 관할하고 있었고 제주도에도 포교소를 설치하고 활동하였다.

40) 『교적부』(1947, 관음사교무소, 한국불교대교종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 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215, 재수록.

경성부 안국정 40번지에 있는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선리참구원에서는 제주읍 오라리 656번지의 2대지 400여 평 된 기지(基趾)에 제주선원 월정사라는 1지방분원을 창립하고 소화 13년(필자 주: 1938년) 9월 16일 오후 2시 반에 해(該) 낙성 겸 창립식을 500여명의 남녀신도 운집리에 거행케 되었는데 경성에서는 우(右) 법인대표로 서무부 계원 최응산 씨를 파견하여 참석케 된 바 제주에 불교가 수입된 후로 선원이 신설되고 선(禪)을 보급케 되기는 금반(今般)이 최초인 동시 기념 강연을 좌(左)와 여(如)히 개최하였다고 한다.

－. 강사 최응산(崔應山)씨

－. 연제 비상시와 선의 생활⁴¹⁾

제주선원 월정사는 제주불교 최초의 선원으로,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 선리참구원의 제1 지방분원으로 창립되었다. 선학원은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하여 일제의 통제를 벗어나 사찰령에 예속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1921년 만들어졌다.⁴²⁾ 일제는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국불교 전체를 31본산체제로 만들어 조선총독부가 관리 통제하였다. 선학원은 이 사찰령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寺)나 암(庵)이라는 보편적 사찰의 명칭을 쓰지 않고 원(院)을 표방하였다. 한용운·백용성 등의 항일인사들이 참여하여, 식민지체제에서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활동하였다. 1934년에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선리참구원으로 인가를 받았다. 제주선원 월정사는 바로 이 선학원의 제주분원이다. 일제의 사찰령을 거부하는 제주선원 설립은 제주의병항쟁에 이은 김석윤의 항일의지를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제의 사찰령에 의해 사찰을 창건하면 총독부에 설립을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하는 식민지 상황에서 김석윤은 불교활동 전면에 나설 수 없었음을 설명하는 자료가 또 있다. 1938년 『불교시보』에 의하면

41) 불교시보사, 『불교시보』제39호(1938. 10. 1.).

42) 김광식,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 『한국근대불교사연구』(민족사, 1996), pp.95-146 참고.

위봉사 제주 표선포교소의 설립자가 김성수인 것으로 나온다.

제주 표선포교소의 백중절 기원제

대본산 위봉사 제주 표선포교소에서는 설립자 김성수(金性洙) 사(師)의 적성운동으로 8월 10일(음 7월 15일) 우란분법회에 신도남녀 수십 명이 모여서 국위선양 무운장구 기원제를 엄숙히 거행하며 일지(日支)사변 이래 전사 황군충혼의 위령제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동일 오후에 회향을 하였다고 하며 신도일동이 국방금 육 원 오십 전을 집합하여 본면 주재소에 헌납하였다고 한다.⁴³⁾

그러나 『교적부』에 의하면 김석윤이 위봉사 제주 표선면포교소를 설립하고 주지를 역임한 것으로 나타난다.⁴⁴⁾ 또한 표선면 포교소 창건 연혁을 보면 김석윤이 창건자이며 토지를 사고팔았던 기록이 있다.

<영천사 연혁>

동중면 토산리 1247번지 전 674평을 창건주 제주읍 오라리 656번지 김석윤(중화) 스님과 임대계약 체결하였고, 1934년 1월 19일 중화스님이 법당 건립용 부지를 매입하였다. 1934년 2월 23일 추가로 대웅전 4칸과 객실 3칸을 건립하고 1934년 3월 18일 토조 석가모니불과 동불상을 제석사에서 이운하여 봉안하였다. 1935년 4월 27일에 다시 사찰 부지를 중화스님이 매입하였으며 1936년 8월 20일 대본산 위봉사 포교소로 등록하였다.⁴⁵⁾

김성수는 김석윤의 아들이다. 이로 보아 김석윤은 총독부와 대면해야 하는 공식적인 활동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인 김성수의

43) 불교시보사, 『불교시보』제39호(1938. 10. 1.)

44) 「교적부」(1947, 관음사교무소, 한국불교대교종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 제주불교사자료집』(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215 재수록.

45) 송도성 소유의 영천사 연혁.

이름으로 표선면 포교소를 등록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례는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선봉대장이었던 강창규의 경우에서도 발견된다. 강창규는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출옥 이후 죽림사로 돌아가 1940년에 대선법계를 받는다. 그리고 제주도로 돌아와 1943년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동일리에 서산사를 창건하였다.⁴⁶⁾ 일제 강점기에는 사찰을 창건하면 사찰령에 의해 총독부에 설립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있었고, 현재 그에 관한 사항은 『조선총독부관보』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서산사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다.

김성수가 위봉사 제주 표선면포교소의 설립자로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강창규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일운동의 이력을 가진 이들의 활동이 제한받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전의 항일운동 이력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통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서 오는 제약이기도 하였으나 김석운의 항일의지는 여전하였기 때문이었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김석운의 항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제주도에서는 1942년 조직이 탄로난 미륵교의 항일운동이 있었다. 미륵교는 일본의 통치를 부정하고 장차 조선사회에 미륵사회가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며 항일운동을 하였다. 이때 검거된 사람 중 양봉진은 1927년 금산사에 출가 당시 김석운의 권유로 미륵교를 믿었다고 하였다.

양봉진은 34세에 보천교도가 되어 1927년 봄 경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에 출가 중 당시 보천교도이며 미륵교 신자인 김종화(金鍾華)의 권유로 강증산을 교조로 하는 미륵교의 신자가 되었다. 그 후 그는 일시 신앙을 단념하고 있다가 1935년 음력 7월 하순경 김형오(金炯梧)의

46) 「강창규 수행이력서」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1951, 대한불교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불교대교종 제주종무원 소장);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p.230, 재수록.

권유로 다시 신앙을 시작하였다. 그는 오라리 월전암(月田庵)에서 김형 오로부터 칠성주문(七星呪文) 구곡가(九曲歌) 우주가(宇宙歌) 안정가(安靜歌) 유산가(遊山歌) 입덕가(入德歌) 및 생활 법로수기론(法路數氣論) 등을 얻어 양계초 송태옥 양원하 변호찬 이두생 등에게 설교하여 미륵 사회의 실현 즉 조선이 독립하고 전세계를 지배할 것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 일로 검거되었다.⁴⁷⁾

김석윤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 항일활동에 참여하는 있는 사실에서 김석윤의 항일의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양봉진에게 영향을 끼치는 등에서 보아 김석윤은 신종교의 성향을 쫓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봉진과의 교류는 1927년이었고 김석윤은 이후 계속하여 승려활동을 지속한다. 이는 김석윤의 다양한 사상에의 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학자이면서 출가한 승려이고, 승려이면서 다시 서재의 훈장을 하고, 미륵교를 신봉하는 면과 함께 선원에서의 참선 활동, 그리고 사찰의 주지활동 등으로 승려생활을 지속한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회상과 일치하는 지식인의 갈등의 일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제주불교의 특징이 민간신앙의 측면과 흡사한 부분이 많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김석윤의 행보가 불교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허용 가능한 범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제주불교는 미륵을 신봉하는 것 뿐 아니라 밀교적 성격도 있었으며 징과 팽과리를 사용하여 민간신앙의 요소를 행하기도 하였으며 대치식육, 긴 머리 승려 등이 특징이었다. 근대 제주불교의 밀교적 특징은 신흥 민족 종교의 특징과 상당 부분이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근대에 들어 제주불교가 조직적인 틀을 갖추고 나서 자체적으로 사찰의 확장과 아울러 민간신앙의 요소를 없애고자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던 것을 보아도 제주불교 스스로도 인정하였던 특징이라는 점이 중

47)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pp.164-165.

명된다. 김석윤이 미륵교에 관심이 있었으며 금산사에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신종교의 흐름을 쫓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륵은 미래세계를 책임지는 불교에서 신봉하는 부처 중의 하나이며, 신종교의 미륵 신봉이 또한 불교적 요소라는 점을 생각하면 승려인 김석윤이 미륵교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금산사는 백제 법왕 원년(599년) 창건되어 신라 진표율사가 미륵도량을 개설한 이후로 지금까지도 미륵불을 주존불로 하는 미륵신앙 도량이다. 이로써 출가한 승려로서 양봉진과 김석윤이 미륵불을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금산사에서 양봉진에게 영향을 끼쳤던 1927년 이후의 김석윤의 활동은 선원(禪院)에서의 참선, 제주선원의 창립 등 입적할 때까지 불교 승려로서의 신분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을 탐구하고 실천하고자 하였던 김석윤의 특징이며, 사상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다양했던 시대를 살았던 이 시대 지식인들의 사상적 경향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김석윤은 1894년 전라북도 위봉사에서 출가하여 갑오농민전쟁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후 항일 의지는 입적할 때까지 그의 행동의 근간이었다.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하는 선학원의 제주분원으로 제주선원을 창립하여 활동하였다. 김석윤은 1909년 제주의병항쟁을 주도한 이후로 입적할 때까지 항일의지를 꺾지 않았음을 주목할 수 있다.

III.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

김석윤은 제주유림의 일원으로 활동하였고, 유림의 스승의 영향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제주의병항쟁에 앞장섰으며 일제강점기 내내 다양한 사상을 섭렵하며 항일 활동을 이어나갔던 인물이다.

본고는 제주유림의 유학자이면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또한 승려의 신분이면서도 서재의 훈장으로 제자를 키우는 김석윤을 통해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의 일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제국주의의 팽창이라는 세계적 조류로 인한 서양세력의 도입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들이 표면화 되면서 사상적으로 대립 양상을 보였다. 개화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서양세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쪽과 개화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식인들은 분열되어 있었고, 개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무리들도 다시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되어 있었다. 제국주의 열강은 이미 여러 형태로 침탈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음에도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대처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곧 사상적 갈등과 대립의 양상에 다름 아니었다.

구한말 제국주의 재편성 과정에서 나타는 혼란은 제주 지역에서도 그 모습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외세의 침입이라는 시대적 상황이 제주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1898년 방성철의 난에서 일본복속설로 민란군이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 1901년 이재수의 난에서는 프랑스를 등에 업은 천주교인의 폐단이라는 외세의 침입 상황을 겪었다. 제주의 지식인들은 제주도로 유배 온 학자들과 일정한 교류를 가지며 그 영향을 받았다.⁴⁸⁾ 조선후기에서 구한말 사이 제주 지식인들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준 인물로는 김정희·최익현·김윤식·박영효 등을 들 수 있다.

48)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제주에서 9년 동안(1840~1848) 유배생활을 한 김정희는 조선후기 실학의 실사구시학과였다. 조선후기 김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실학의 실사구시학과는 학문 자체에 목적을 두고 객관적 태도로 사실을 밝히고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개혁 정신을 주장하여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조선후기 실학사상은 개화사상으로 이어져 국권회복과 실력 배양을 위한 계몽운동으로 교육과 경제에 힘을 쏟고 사회단체의 결성 등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정희의 유배기간 중 제주 유림의 유학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열망하였다고 하는데 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후일 제주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추사의 제자 이한우는 후일 조천에서 일어난 제주도의 3·1운동을 주도했던 김희정의 스승이다. 추사는 강도순의 집에 머물렀는데, 후일 강도순의 증손 강문석은 개량서당인 한남의숙(漢南義塾)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운동에 힘썼다. 김정희는 제주도 유배 시절 서양문물 소개서인 해국도지(海國圖志)라는 서적을 구해 읽고 있다. 이러한 김정희의 사상은 제주 유림에게 전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희의 제주 유배 시절 제주도에서 3년간 시중을 들었던 제자 강위⁴⁹⁾가 초기 개화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으로 추사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역량 있는 활동을 이어나간다. 제주도의 제자들도 후일 제주 사회의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열강이 밀려들어 오면서 위기를 느낀 조선은 사상적으로 유교를 지키고 서양의 세계관을 배척하는 위정척사사상으로 민족 주체성과 자아의식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조는 1870년대 후반 반개국 정책과 1880년대 초 반개화운동, 1890년대 이후는 의병운동으로 표출

49) 강위(姜緯 ; 1820년~1884년). 김정희의 제주유배 시절 제자로 삼정(三政)의 폐단에 대한 시정책을 판서 정건조에게 적어주었고, 1883년 한국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를 간행하였다. 국한문 혼용에 많은 공을 세웠다.

되었다. 제주의 지식인들도 이와 같은 맥락 속의 활동을 보여준다. 구한말 제주에 유배되었던 위정척사사상의 최익현의 영향은 제주의병향쟁과 제주도 3·1운동 등의 항일운동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최익현은 1873년 12월 제주도에 유배 되어 1875년 4월까지 1년 4개월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1895년 8월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일어나고, 11월에 단발령이 내려지자 개화를 반대하고 예전의 봉건적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위정척사론의 입장에서 유림 세력을 결집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제주유림은 최익현이 사망하자 그의 사상을 이어 김석윤·고승천 등을 중심으로 의병을 일으켰으며, 또한 이응호 등의 최익현의 학통을 이은 12명의 유림 인사들은 집의계를 구성하여 항일의 뜻을 모으기도 하였다. 김석윤의 스승 김병규도 집의계의 일원이었음을 앞서 살폈다. 또한 최익현의 제자 김희정⁵⁰⁾을 이은 조천의 유림들은 제주도의 3·1운동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이 되기도 하였다.⁵¹⁾

김윤식과 박영효는 신학문과 개화사상을 통해 제주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김윤식은 서학을 수용하는 주체로서의 조선의 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폭넓게 서학을 수용하자는 동도서기론(東道西器論)을 주장하며 외세에 의존한 개화를 주장한 온건개화파이다. 김윤식은 1897년 제주도로 유배 와서 1901년 6월까지 홍종시·정병조 등의 제주 유림과 궤원 시회를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박영효는 갑신정변과 갑오개혁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서양문물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 인물이다. 박영효는 1907년 9월 유배 와서 1910년 6월까지 3년여의 제주도 생활을 하였다. 그는 원예 농사와 식생활 개선 등의 실생활과 관련된 활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신학문을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홍종시·김응전 등의 제주유림과 교류하여

50) 양진건,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p.151.

51)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제주도사연구』 창간호 (제주도사연구회, 1991).

제주 사람들에게 개화사상을 전해주었다.

유배인들의 제주유립과의 교류와 그 영향은 홍종시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홍종시는 김정희의 제자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완당선생서법총론』이라는 저서를 남겨 김정희의 영향력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또한 김윤식의 추천으로 1921년 워싱턴 태평양회의에 제출되었던 독립청원진정서에 서명하였고 굴원 시회에서는 김윤식과 함께 불교경전을 읽거나 석탄일을 기념하는 등의 활동 기록⁵²⁾을 남기고 있으며 박영효와도 교류하였다.⁵³⁾ 유학자인 홍종시는 제주불교협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1924년 결성된 제주불교협회의 시회장으로 ‘관세음보살개금원문’⁵⁴⁾에 이름을 남기고 있으며, 1925년에는 제주불교협회 포교당 건축비를 회사하기도 하였다.⁵⁵⁾ 홍종시의 행보를 보면 김석운의 행보와 유사하게 다양한 사상에의 편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는 정치적 혼란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상적인 다양성과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였다. 유학자이면서 승려였던 김석운이 보여주었던 사상적 편력은 홍종시에게서도 볼 수 있다. 제주 지식인들은 유배인들의 당대 사상의 흐름이었던 위정척사사상은 물론 유학자이면서도 불교를 신봉하는 의식을 행할 뿐 아니라 개화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섭렵하고 있으면서 1909년의 제주의병항쟁과 1919년 조천 지역의 제주 3·1운동 등에서 앞장서서 조국의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의지 실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석운은 유학자이며 승려이면서 항일운동가로 활동하였다. 유학의

52)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1996), p.80, p.105, p.189.

53)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54) 제주 관음사 소장(1925년).

55) 『매일신보』(1926. 1. 20).

전당인 서재에서 스승과 함께 불교경전을 공부하였으며, 출가하여 관음사에서 활동하면서도 서재의 훈장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천의 모습은 그의 사상적 섭렵에 토대한 것이다. 김석윤의 예를 통해 근대 제주인의 사상적 섭렵의 일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맺음말

근대 제주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마찬가지로 사상적으로도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었고 제주의 지식인들은 다양한 사상을 섭렵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석윤은 출가한 승려이면서 유학을 가르치는 서재의 훈장을 하였고 1909년 제주의병항쟁에 무기제조와 창의에 앞장서고 통고사를 작성하였으며 의병장을 역임하는 등의 항일활동을 벌였다.

정치적 사상적으로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김석윤의 생애를 통해 제주 지식인의 사상적 갈등의 양상도 엿볼 수 있었다. 승려이면서도 유학자로서 후학을 양성하였을 뿐 아니라 미륵교에 관심을 보였고 동학 등의 다양한 사상을 섭렵하기도 하는 사상적 경향을 보여주는 등의 일련의 현상은 바로 시대적 사상의 혼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김석윤의 사상적 편력은 곧 다양하고 변화 많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제주지식인의 사상적 다양성을 보여줌에 틀림없다.

김석윤 외에 홍종시의 경우에도 그러한 다양성을 보여주었다. 최익현의 사상을 이어 김석윤·고승천 등이 의병을 일으키고 이응호 등 유림 인사들이 집의계로 항일의 뜻을 모았으며 김희정 등 조천의 유

림들은 제주도의 3·1운동을 이끌어내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홍종시·정병조 등의 제주 유림과 굴원 시회는 김윤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홍종시는 김응전 등과 박영효의 개화사상을 이어받기도 하였다.

제주 지식인들의 사상적 동향은 당대 사상적 흐름이었던 위정척사 사상은 물론 개화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상을 토대로 항일운동에 앞장섰으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하여 사상적 갈등을 겪었음도 또한 사실이다.

근대시대 제주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 양상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를 어렵게 살아나갔다. 승려 김석윤은 바로 이러한 제주 지식인들의 다양한 사상적 동향과 실천의 어려움을 대변해 주는 인물로 일제강점기라는 혼돈의 시기에도 새로운 사상을 배우려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낼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김석윤의 다양한 사상적 편력을 통해 근대 지식인의 고민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고병오, 『원대정군지(元大靜郡誌)』영인본, 대정역사문화연구회, 2006.
권태연 편역, 『회명문집』 도서출판 여래, 1991.
김석윤의 「일기」 1948, 김동호 소장.
김윤식 저, 김익수 역, 『속음청사』 제주문화원, 1996.
이은상, 『탐라기행』 조선일보사, 1937.
진원일,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지』제39집, 1969. 7.
『교도책임자명부(이력서철)』 1951, 대한불교제주교도회 제주교무원, 한국
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교적부』, 1947, 관음사교무소, 한국불교태고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불교시보사, 『불교시보』제39호, 1938.
제주도, 『조선총독부 관보 중 제주록』, 1995.

2. 저서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3. 논문

- 김광식, 「일제하 선학원의 운영과 성격」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김동전, 「제주인의 3·1운동과 그 영향」 『제주도사연구』창간호, 제주도
사연구회, 1991.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 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 고려대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양진건, 『조선조 제주 교육사상사 연구』 단국대박사학위논문, 1991.
오 성,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과 관음사 창건」 『대각사상』제9집, 대각
사상연구원, 2006.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
문, 2010.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항일운동의 성격」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한금순,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대각사상』제9집, 대각사상연구원, 2006.

한금순, 「1918년 제주도 법정사항일운동 관련 『형사사건부』 분석」 『대각사상』제12집, 대각사상연구원, 2009. 12.

한금순, 「제주도 존자암 고(考)」 『대각사상』제16집, 대각사상연구원, 2012.

K C I

Abstract

Review on Ideological Adversity and Practice of Intellectuals in the modern era of Jeju with the case of Kim Seok-Yoon, Buddhist Monk

Han Geum-soon
(Lecturer, Jeju National Univ.)

Kim Seok-Yoon was Confucianist and Buddhist monk in Jeju. After entering the Buddhist priesthood, he took a leading position in organizing the resistance group with armament and declaring the antagonism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The lifetime of Kim Seok-Yoon shows the aspect of political behaviors by intellectuals in Jeju, which includes ideological agony and active engagement into periodical condition.

Kim Seok-Yoon performed a central role of anti-Japanese resistance in Jeju, while he was involved in the Confucian education at town even after having already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Owing to his career of engaging himself in anti-Japanese movement, he was under unceasing surveillance by Japanese government. Therefore, he left Jeju-do for practicing the meditation based on Seon-won of Yong-Hwa-sa in Tong-Yeong. However, even though he left from Jeju, he not only supported the activities in Gwaneum-sa, but also got involved in the establishment of human resources at Beop-Jeong-sa for carrying out the anti-Japanese movement. The fact Kim Seok-Yoon had close relation with Kim Yeon-Il, Kang Chang-Gyu, and Bang Dong-Hwa, who took the leading role of anti-Japanese movement at Beop-Jeong-sa, supports his involvement

in Jeju.

By the late 1930's, he reactivated the resistance movement in Jeju. For avoiding the restrictions of 'Sachalryeong' that was temple ordinance legislated by Japanese imperialism, he established Jeju-Seonwon as the first regional branch of Central Seonri-Chamgu-won of Choseon Buddhist Foundation. The influence of Kim Seok-Yoon also reached the anti-Japanese resistance of Mireuk-gyo in Jeju, in 1942. Because of his huge influence on anti-Japanese movement, he was under constant surveillance of Japanese government during colonial periods. The link between Kim Seok-Yoon and Mireuk-gyo proves his interest on Mireuk faith.

The ideological career of Kim Seok-Yoon is quite diverse ranging from Confucianism and Buddhism to Mireuk faith. Considering the ideological career of Kim Seok-Yoon that ranges from the Confucianist engagement in education to the Buddhist priesthood as the chief of the temple, his lifetime was composed of transboundary practices beyond religious difference. This ideological variation of Kim Seok-Yoon implicates the intellectual affliction corresponding to the societal aspect of Korea in the late 19th century that was the chaotic period filled with political dissonance and ideological division. In addition, his ideological variation was practical consequence of the intellectual responsibility to cope with these periodical difficulties.

Key words

Anti-Japanese resistance in Jeju

The manifesto of anti-Japanese resistance in Jeju

Anti-Japanese movement at Beop-Jeong-sa

Jeju-seonwon

Anti-Japanese movement of Mireuk-gyo

Confucian School in Jeju

Anti-Japanese Buddhist
Establishment of Gwaneum-sa
Mungui Private school
Yong-Hwa-sa in Tong-Yeong

K C I

논문투고일 : '13. 04. 27 심사완료일 : '13. 05. 30 게재확정일 : '13. 05. 30